

車·문화·에너지...성장동력 날개 달다

뉴스 초점

국정과제에 담긴 광주의 미래

광주가 미래 도약을 위한 더 없는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과제에 새 정부 5년간 정책적 지원과 충분한 예산 투입이 수반된다면 정체돼 있던 지역경제와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의 전향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터뷰·관련기사 3면>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반영된 광주 핵심공약 가운데 광주의 미래와 연관된 것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한전공대 설립 ▲미래형 자동차 생산

5년간 정책 지원·예산 투입...지역경제·산업 획기적 전기 에너지신산업 거점·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도약 기틀

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등이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됐다.

광주의 미래 주제를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문화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일자리 모델, 운영 지원, 실증단지·신시가지 조성 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6기 시작부터 준비했던 지역경제·산업의 틀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만나면서 국가의 기간사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향후 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과 함께 광주·전남 일대에 조성중인 에너지밸리 인해 광주·전남이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대응,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에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세계적 에너지 인재와 연구시설, 기업이 집적되면서 광주·전남의 미래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밸리의 규모와 내실을 키우면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의 제정, 광주·전남이 상호 집중해야할 대상 구분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태양, 바람, 조수 등 에너지원이 넘치는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의 추출, 저장 등을, 광주는 신에너지의 연

구, 수요 관리, 적용 등의 분야를 각각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 이미 '친환경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3030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빛그린 국가산단에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완성차 라인 유치를 꾀하고 있다. 미래 사업에 '광주형 일자리'가 장착되면서 지역산업 발전과 함께 질 높은 일자리 공급이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준비한 광주의 과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때'를 만나면서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과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올해부터 정부부처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1조 추경안 국회 통과 광주시·전남도 1490억 확보

중앙 공무원 2575명 증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14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관련기사 2면>

이번 추경안 통과를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11조1869억원 규모로 정부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원 가량을 감액한 11조333억원 수준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

정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일자리 모델 관련 용역비 3억원이 추경에 반영,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핵심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전남도의 경우 물부족 해결을 위한 영산강 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극심한 대치를 거듭, 45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예결위 역시 파행을 거듭하다 극적으로 이날 새벽 3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본회의 역시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어야 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본회의의 통과일인 이날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추경예산 공고안과 재정계획안을 상정·결선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가운데 70%를 앞으로 두달 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의원 지명

현역의원 5번째 입각...여성장관 30% 공약 이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장관에 3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62·사진) 의원을 지명했다.

김 장관 후보 인선은 조 후보자가 지난 13일 낙마한 지 꼭 열흘 만이다. 이로써 새로운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됐으며 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의 공약도 지켜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19명의 장관급 가운데 김 후보자를 포함하면 여성은 6명이 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농구선수 출신의 이례적인 경력을 지녔으며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를 거쳐 전국금융산업노조에서 여

성 최초로 상임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17, 18, 20대에 연속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노동문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검증된 정부 역량으로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원한 질주 남부지방에 폭염이 계속된 23일, 여수 만성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바다 위에서 워터스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전남 오늘·내일 짙은 비 온 후 주말까지 폭염 지속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비가 예보된 오는 25일을 제외하면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6·10면>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광주·전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이 많다가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전동·번개가 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예보했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어 "광주·전남은 25일에는 우리나라 북동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진 장마전선의 끝자락에 살짝 걸치면서 전 지역에서 하룻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주 잠깐 무더위가 주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고 28일까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으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해안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3일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된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등 앞으로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열정의
가운뎃다운 시작!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D-200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린 만큼 더 큰 함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

평창
PyeongChang 2018™

D-2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